

제91회 아카데미 시상식 '그린북' 작품상...최대 이변



이변 없이 진행되는 듯 보였던 제91회 아카데미 시상식. 하지만 시상식 최고의 영예인 작품상에서 역대급 이변이 펼쳐졌다. 영화 '그린북' (피터 페럴리 감독)이 25일(한국시각) 미국 LA 할리우드에서 열린 제91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린북'은 1962년 미국, 입담과

주먹만 믿고 살아간 토니 발레롱가(비고 모텐슨)와 흑인 전제 피아니스트 돈 셸리(마허살라 알리)의 우정을 그린 영화로 각본상, 남우조연상을 포함해 3관왕을 차지했다. 시상식 전부터 전 세계 비평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로마' (알폰소 쿠아론 감독)가 작품상을 놓치면서 올해 시상식 최고의 반전으로 꼽히

게 됐다. 외국어 영화 최초이자 넷플릭스 영화 최초 작품상을 수상 노리던 '로마'는 작품상 대신 감독상과 촬영상, 외국어 영화상으로 만족해야 했다. '로마'를 연출한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2014년 제86회 시상식에서 '그레비티'로 감독상을 받은 후 5년

'보헤미안 랩소디' 4관왕 최다 수상

만에 감독상을 품에 안게 됐다. 가장 큰 관심을 받은 남우주연상은 각각 '보헤미안 랩소디' (브라이언 싱어 감독)의 라미 마렐과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 이하 '더 페이버릿')의 올리비아 콜맨에게 돌아갔다.

영국의 전설적인 록그룹 퀸과 메인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이야기를 그린 '보헤미안 랩소디'는 전 세계에 '퀸 신드롬'을 일으킨 작품. 국내에서도 무려 993만 관객(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을 동원하며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라미 마렐은 극중 프레디 머큐리가 환생한 것 같은 완벽한 싱크로율을 보이며 앞서 열린 영국 아카데미와 미국 배우 조합상, 골든글로브에서도 남우주연상을 받기도 했다. 이집트계 미국인이기도 한 라미 마렐은 수상 직후 무대에 올라 "이민 첫 번째 세대인 이야기이기도 한 이 영화를 꼭 연기하고 싶었다"며 탄자니아 출신의 프레디 머큐리를 연기한 것에 대해 남다른 마음을 드

러냈다. 그러면서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연인을 연기한 후 진짜 연인으로 발전한 메리 역의 루시 보인턴에 대한 사랑을 덧붙이기도 했다. '보헤미안 랩소디'는 남우주연상 뿐만 아니라 편집상, 음향편집상, 음악효과상까지 받으며 4관왕을 차지하며 올해 아카데미 최다 부문 수상작이 됐다.

여우주연상 수상자인 올리비아 콜맨은 '더 페이버릿'으로 생애 첫 노미네이트에서 첫 수상의 기쁨까지 안게 됐다. 앞서 골든글로브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으며 아카데미 수상이 유력하게 점쳐졌던 더 와이프의 글렌 클로즈는 7번째 아카데미 수상 고배를 마셔야 했다.

수상 직후 올리비아 콜맨은 무대에 올라 글렌 클로즈를 언급, "당신은 나의 아이돌"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조연상에서는 흑인 파워가 빛났다. 흑인 배우인 마허살라 알리와 레지나 킹이 각각 '그린북'과 '이프 빌 스트리트 쿼드 토크' (베리 젠킨

슨 감독)으로 조연상을 수상한 것. 스타프상에서도 흑인들의 선전이 빛났다. 히어로 영화로는 최초로 작품상 후보에 올라 화제를 모았던 '블랙 팬서' (라이언 쿨러 감독)는 미술상, 의상상, 음악상까지 3관왕에 올랐다. 흑인 히어로를 전면에 내세운 '블랙 팬서'는 감독과 주연은 물론, 80%이상의 스태프들이 모두 흑인으로 구성된 화제를 모았던 작품이다.

또한 백인우월주의 단체 KKK단에 잡힌 흑인 형사 론 스톨워스의 에세이를 기반으로 한 '블랙클랜스 맨' (스파이크 존즈 감독)이 각색상을 받았다. 각색상 수상 후 무대에 올라 2월이 아프리카계 흑인의 달임을 언급한 스파이크 존즈 감독은 "나를 만든 사람들, 원주민을 모두 죽인 사람들에게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2020년 대선에서 도덕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사람과 증오 사이에서 옳은 선택을 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하는 발언으로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한편, 아카데미상은 일명 '오스카상'이라고도 하며, 미국 영화업자와 사회법인 영화예술 아카데미협회가 수여하는 미국 최대의 영화상이다.

'트랩' 진짜 헌팅 그라운드=이서진 집, 결말 어떻게 되나



'트랩' 진짜 헌팅 그라운드=이서진 집, 결말 어떻게 되나

OCN 드라마틱 시네마 '트랩' (극본 남상욱 연출 박신우) 성동일이 드디어 이서진의 실체를 알아내면서 시청률은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그러나 정신병동 감금으로, 최종회를 남겨두고 끝까지 안심할 수 없는 전개를 이어갔다.

24일 방송된 '트랩' 제6화 '헌팅 그라운드(Hunting Ground)'는 케이블 IPTV, 위성을 통합한 유료플랫폼 시청률에서 가구 평균 3.9%, 최고 4.9%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 케이블, 종편 포함 동시 간대 1위를 차지했다. OCN 타깃인 남녀 2549 시청률 또한 평균 2.9%, 최고 3.4%로 케이블, 종편 포함 동시 간대 1위를 기록했다. (유료플랫폼 전국기준/닐슨코리아 제공)

사냥꾼들 중 골퍼(백지원)의 지시로 윤서영(임화영)이 차량 사고를 당한 가운데, 흥원태(오릉) 대표 회사를 찾아가간 광수 대장 양덕철(오창경). 건물 설계 도면에만 존재했던 지하 6층으로 내려간 광수대는 쇠사슬로 묶인 병동에서 신연수(서영희)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 소식을 듣고 절망한 강우현(이서진)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아내를 잃고 슬퍼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 그의 감춰진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다. 아직 우현의 실체를 알아채지 못한 고동국(성동일)은 우현과 서영의 소식으로 고통스러웠다. 사고로 인종 하 반신을 잃은 서영을 보자 무너져 내린 동국은 경찰학교에서부터 자신을 잃고 싶어했다는 서영에게 "너는 훌륭한 경찰이다. 너는 좋은 파트너다"라는 말을 해주지 못한 것이 그 후회스러울 뿐이었다.

중격적인 일들이 이어지면서 동국은 수사 의지를 잃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설 일이 아니야"라고 포기하는 동국을 보며 다른 작전을 세운 박내형사(장성범), 조진숙 범죄자 추적 방송을 하는 BI(이홍내)를 이용해 조진숙 칼리인 호개(장원형)를 잡는 것이었다. 이들은 조진숙이 모여 있는 PC방을 찾아가 생방송을 시작했고, 호개는 빈틈을 타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추격과 격투 끝에 간신히 호개를 제압한 박내형사는 배남수(조달환) 형사를 살해했다고 사주한 사람이 우현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본색을 드러낸 우현은 본격적으로 정처에 입문하기에 앞서 고기자(최재섭)를 만나 인터뷰를 했다. 그리고 "강우현은 앞으로 계속 싸울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의 이름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고 그 또한 타인의 이름을 이해할 줄 아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라며, 자신의 실체를 완벽하게 숨겼다. 하지만 동국도 우현의 수상한 꾀새를 곧 눈치 챘다. 폭발한 차량에서 발견된 우현의 플라로이드 가족사진에 서영이 반응했기 때문. "숨어있는 Imm를 찾았다는 게 이 사진이란 관련이 있어? 그럼 배형사가 왜 죽었는지 알아냈다는 것도?"라며, 서영이 사고 직전 알아낸 사실을 짐작한 동국은 우현의 집을 찾았다. 연수 얼굴에 엑스자가 덧칠된 아들 강시우(오한결)의 그림은 원손잡이인 시우가 그린 것이 아니며, 책상 위에 꽂혀있는 플라로이드와 사건 당일 플라로이드의 크기가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다. 특히 플라로이드의 압정자국을 숨기기 위해 잘라낸 Imm로 인해 "이 사진은 10월 15일 사건현장 부근에서 찍은 사진이 아닐 수도 있어. 어쩌면 이 가족은 그 날 신에 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라고 추측했고, 마침내 "헌팅 그라

운드는 산이 아니라 바로 이 집이었어"라는 충격적인 결론을 내렸다. 시사프로그램을 녹화중인 우현을 찾아가 동국은 자신의 추리를 숨김 없이 이야기했다. 연수의 목을 졸라 죽이고 시우는 현장에서 치밀하게 사냥 당한 연출에 이용했다는 믿기 힘든 내용이었다. 게다가 신장 카페 주인(윤경호)과 사냥꾼(오만석)을 죽이고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힌 사람도 모두 우현 본인이라는 것. "흉터표가 인간을 사냥하는 연쇄 살인범이라는 건 사실이겠지. 넌 그걸 추측하는 놈이니까 그 사실을 이용하려 했던 거"라는 동국의 말을 듣고 있던 우현은 펜 녹음기를 꺼내 들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다. 녹음기에는 "고형사냥까지 이리되면 저는 어떡할까"라는 간절한 목소리가 녹음됐지만, 동국을 바라보는 눈빛은 섬뜩하고 차가웠다. 우현의 악마 같은 웃음에 분노한 동국은 "기다려. 내가 널 사냥할 거야"라고 경고

했다. 하지만 동국은 의문의 남자에게 불합계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감금됐다. "난 미치지 않았어"라고 소리쳐봤자 그의 말을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한편, 호개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진 박내형사 앞에 괴한들이 나타났다. 일촉즉발의 순간, 배신자로 알고 있던 정만호 반장(김광규)이 "나를 한번 써먹어봐. 아직은 쓸 만할 거야"라며 그들을 도운 덕분에 간신히 도망칠 수 있었다. 그 가운데, 우현은 자신의 의지를 테스트하고 싶어 하는 사냥꾼들에게 임종해 보이기 위해 동국 아내의 식당을 찾았다.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날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 이 일을 끝낸 후에 어떤 아버지가 내게 보여 줄 극한 고통. 그걸 학습해보고 싶어서요"라면서, 동국의 아내와 딸을 바라보며 섬뜩한 미소를 짓는 우현. 그의 악마의 행각은 어디까지 계속 될까.

엑소 'Tempo' MV 1억뷰 돌파



그들 엑소(EXO)의 정규 5집 타이틀 곡 'Tempo' (템포)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1억뷰를 돌파했다.

지난해 11월 2일 유튜브 SMTOWN 채널을 통해 공개된 'Tempo' 뮤직비디오는 2월 25일 유튜브 조회수 1억뷰를 돌파했다. 이로써 엑소는 'Monster', 'CALL ME BABY', 'Ko Ko Bop' 등 3편의 2억뷰 뮤직비디오와 '으렁', '죽목', '늑대와 미녀', 'Lato', 'LOVE ME RIGHT', 'Tempo'까지 6편의 1억뷰 뮤직비디오를 보유해 글로벌 인기를 다

시 한번 실감케 했다. 엑소 정규 5집 타이틀 곡 'Tempo'는 발표 당시 각종 음원, 음반 차트, 음악방송 1위를 싹쓸이 한 것은 물론, 아이튠즈 종합 앨범 차트 전 세계 48개 지역 1위,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빌보드 200 28위 및 '히트스트리트 100' 9위,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2주 연속 1위, 중국 사커뮤직 종합 차트 1위 등 인기 행진을 펼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더불어 엑소는 이번 앨범으로 정규 앨범 5장 연속 음반판매량 100만 장을 돌파해 쿼터폴

(quintuple) 밀리언셀러에 등극했다. 2000년 이후 데뷔 가수 최초로 국내 누적 음반판매량 1,000만장을 넘는 대기록도 세우 초특급 파워를 입증한 바 있다. 엑소의 여행 리얼 버라이어티 '엑소의 사다리 타고 세계여행 - 가오승&퀸던편'은 매주 월~금요일 오후 8시 프리미엄 동영상 서비스 옥수수(oksusu) 및 태국 모바일 TV 애플리케이션 트루아이디(TrueID), 대만 라인TV에서 동시 공개된다.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XtvN을 통해 TV 방송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오늘의 운세 2019년 2월 26일 화요일 (음력 1월 22일)



▶**소띠** 쓸데없이 한 말이 문제 생김다. 3, 5, 9월생 하늘밖에 모르는 일을 누군가 알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 북쪽 그, 바, 자 성씨에게 사정 말하면 수습해 줄 듯.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이치 잊지 말고 언행 조심. 붉은색이 안장 준다.



▶**곰띠** 부모나 자녀로 인해 신경 쓸 일 있다. 직장 일에도 지장 있겠다. 공경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오, 사, 툄 성씨 내 것도 아니면서 남의 사람 틈대간 뒷담화 잡혀 관계, 구설수 있게 되니 조심할 것.



▶**황령띠** 때 아닌 까지 소리로 반가운 소식 듣는다. 때 아닌 수입도 올리니 오랜만에 기분 풀리는 하루. 기분 좋아 과속하면 더 몇 배 슬퍼지는 오후 되니 조심하라. 늦은 길 조심. 1, 5, 9월생 받을 것 독촉하라. 나, 사, 승 성씨 서쪽사람이 도움 준다.



▶**토끼띠** 혼인이 늦어진 노총각, 노처녀에게 경사 있겠다. 행운을 잡아라. 친구 도움으로 짝꿍 생길 듯. 그, 바, 오 성씨 만약 지금 사귀는 이가 있다면 오히려 갈등 심각. 기혼자는 부부의 사랑을 더욱 깊게 해서 관심 보여야 할 때. 적극성 필요.



▶**호랑띠** 비밀을 마음에 담지 못하는 성격에 부부간 일을 친구에게 말해서 그 말이 메아리가 되어 큰 소리가 날 듯 하니 잠당은 금물이다. 1, 4, 8, 12월생 받을 것 못 받고 줄 사람은 많으니 한숨뿐이구나. 쥐, 말, 닭띠를 멀리하라.



▶**뱀띠** 포용력이 있으니 어디에 가더라도 대접을 받는다. 사업에도 빛이 보이니 미래에 웃음소리가 들린다. 쉬는 것도 내일을 위함이니 건강 조심하고 남남관계는 절대 금물이다. 3, 4, 12월생 원치 않는 일로 근심걱정 분.



▶**말띠** 남이 주는 것이 공짜라고 마구 먹어대면 소화가 안 된다. 지금 약을 먹더라도 시기는 이미 늦은 듯. 1, 5, 9월생 신 퇴양년격. 주변을 빨리 정리하라. 도피는 불가능. 움직이려면 차는 두고 나가라. 66년생 화근이 뒤따라니 서쪽 출입 삼가야.



▶**양띠** 근면 성실한 태도에 주위 사람들의 호응을 받게다. 사, 오, 자 성씨 현재는 별 소득이 없을지라도 꾸준한 노력이 덕이 되어 승진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연상, 연하와 인연되어 구설이 우려된다. 항상 행동을 바로 함이 좋을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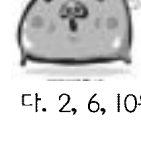
▶**원숭띠** 허영심만 버리면 서쪽에 그, 오, 자 성씨가 만나 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가족과 약속이 있으니 내일로 정하자고 하라. 당신의 가정에 충실하고 있는 모습에 더욱 감탄하라. 나, 오, 자, 표 성씨 애정과 사업에 갈등이 크다. 건강 조심.



▶**닭띠** 취중에 하는 말이 백배로 효험이 있는 날이다. 공짜로 얻어먹고 푸념한 것이 상대방 심중 울린다. 더욱 친밀함이 올 듯. 연인의 마음도 열리는 날. 바, 자, 승 성씨 범, 돼지 띠가 힘이 되어 줄 듯 하니 꼭 잡아라.



▶**돼지띠** 용기가 부족하고 결단력이 없어 잘 되어가는 일을 망설이고 있다. 오늘은 스포츠라도 여유있게 즐기자. 용기를 얻어 내일 하려는 일은 미리 착수하라. 생각보다 진행이 빠르게 될 것이다. 그, 사, 승 성씨의 조언을 참작할 것.



▶**용띠** 흐트러져 있던 재물이 모이는 격이여 직장인은 상사에게 칭찬도 받게다. 동쪽에 귀인이 있겠으니 언행 조심하고 겸손한 태도가 좋을 듯. 3, 5, 9월생 사랑싸움 길면 안 된다. 2, 6, 10월생 금융계에 투자는 길. 그, 사, 승 성씨 멀리하라. 파란색이 길.